

[서평 2(한국어)]

식민지 일본어문학 · 문화연구회 편

『제국의 이동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』

〈책 소개〉

『제국의 이동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』은 입장과 실증, 두 쪽에 모두 도전한 야심찬 시도로 보이는데, 종합지 『태양』과의 연계라든가 통감(총독)부와의 인적 관련 등 ‘제국의 미디어’로서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다 못한 말이 적잖은 듯 보여, 식민지 일본어문학 · 문화연구회의 앞길에 기대하게 되는 바 크다. 늘 탈아(脫亞)를 욕망해 왔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이 변화의 지점에서, 아시아의 일원으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 것인지, 감히 함께 궁리해 보고 싶어진다.



소문만 들어왔던 『조선』인데, 실물을 보기 전에 먼저 꼼꼼한 연구서를 읽게 되었다. 총 열네 편의 논문이 지면 구성과 미디어 전략, 식민지 표상과 젠더 정체성, 정치·사회적 문제의 담론적 개입이나 종교·교육 분야를 둘러싼 의견 표명까지 고루 다룬 내용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, 어느덧 1908-11년의 『조선』을 일추 읽은 듯해 배가 부르다.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연구서가 번역되고 『조선』, 『조선 급 만주』, 목차·색인집이 간행되는가 하면 도한(渡韓)한 일본인 여성·노동자·교사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로질러 그 사회인식과 문화실천을 탐색한 논문들이 발표되어 왔던 터인데, 이 책, 『제국의 이동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』(도서출판 문, 2010)을 통해 ‘식민지 조선의 일본인’에 대한 공부는 또 한 발자국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.

거류민단과 통감(총독)부 사이 알력이나 총독부와 중앙정부 사이 긴장이 보여주듯 ‘식민지 조선의 일본인’이라는 정체성은 결코 간단치 않다. 외려 그 복잡성으로 인한 추(錐)의 동요가 존재의 무게 자체를 지워 왔다고 볼 수 있을 법한데, 『제국의 이동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』에 실린 논문들은 이를 “이중적이고 다성적인” 정체성으로 이론화해 내는 데 한결같은 관심을 기울인다. 식민지에 온 일본인들은 말이나 글에서 조선어의 흔적을 남기고(97-100) ‘제국의 최전방’으로서 강경한 팽창주의를 고집하는 한편(225-26) 식민지행에 불안과 비애를 느끼고(43-44, 92-93) 자신들만 희생되고 있다는 원망을 토로하며(204) 통감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선을 던지고(240) 본국에서보다 한결 강하게, 자기 자신부터 식민화·타자화하는 구조 속에서 조선인을 타자화하는 분열적 구조에 시달린

다(288-303). 여성의 경우는 더더욱 자기식민화의 시선 속에서 의복이나 생활태도에 대한 억압에 시달리고(375-76) 국가 충돌의 폭력 속에서 희생되며(334) ‘식민지 기분’의 손쉬운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(353-54). 조선인 기고자의 목소리가 ‘친일’로 편향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의 “다양한 ‘음색’”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제안하는 데 이르면(118) 이종성·다성성이라는 시각은 한국이라는 민족국가까지 겨냥하는 데 도달하는데, 이들 시도는 모두 “일국사적 시야를 해체해 가는”(73) “탈경계학”(44)을 모색하는 좌표로 수렴되고 있다.

자본주의와 민족국가를 핵심으로 하는 현재의 세계체계가 변환하고 있다는 논제가 1960년대 말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,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 본격화된바 국가간·학문간 경계를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. 50-100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 변환의 주기에 한국이 좀 늦게 참여했다는 뜻이겠다. 10여 년을 지나 『제국의 이동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』이 그럼에도 새롭게 보이는 것은, 한국에서 일본학 분야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 일본은 한국(또한 조선인민공화국)이라는 민족국가가 구축해 온 정체성의 핵심에 위치한 기호이며, 그 위치에 긴박되어 있었던 만큼 일본학은 최근해야 학문 간 소통을 적극화하기 시작한 분야이다. 일본을, 일본의 균열을, 일본 앞에서의 동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저력이 축적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터이다. 지난 몇 년 한국문학 연구에서 식민지시대 일본어 글쓰기가 본격적으로 조명되는 본세를 보면서도 생각했지만, 어떤 체제든 끊임없이 외부를 생산해 내기 마련이고, 근대 민족주의 또한 “일국문학의 틀”이나 “일국사적 시야”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생산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구축해 왔을 것이다.

한때 ‘제국사’나 ‘제국문학’이라는 용어로 제안된 바 있는, 근래 문학 분야에서라면 ‘외지 일본어 문학’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는 제국 내 비(非) 일본의 경험이 주변적 소재가 아니라 중심적 의제일 수 있는 근거 역시 여기 있다고 생각된다. ‘변환 이후’를 점칠 수야 없겠다— 자본주의나 민족국가 체제의 병폐가 도리어 악화될는지, 아니면 그야말로 새로운 ‘제국’이 펼쳐질는지, 그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. 냉전의 마지막 화약고이자 한·미·일 체제의 꼭짓점인 한국은 걸음걸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, 설부른 입장보다 야무지게 다진 실증 한 마디를 탐내게도 된다. 『제국의 이동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』은 입장과 실증, 두 쪽에 모두 도전한 야심찬 시도로 보이는데, 종합지 『태양』과의 연계라든가 통감(총독)부와의 인적 관련 등 ‘제국의 미디어’로서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다 못한 말이 적잖은 듯 보여, 식민지 일본어문학·문화연구회의 앞길에 기대하게 되는 바 크다. 늘 탈아(脫亞)를 욕망해 왔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이 변환의 지점에서, 아시아의 일원으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 것인지, 감히 함께 궁리해 보고 싶어진다.

권보드래 (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)